

#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능 강화와 화협의 역할



**김 병 기**  
동국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이사

## 1. 머리말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생겨나고 또 대형화되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서울 아현동의 가스 폭발,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붕괴, 서해 페리호의 침몰, 부산 구포의 철도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의 추락 등 대형 인제가 잇따랐고, 최근에는 자연재해로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1999년에는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대재해가 발생하였다. 대만, 터키, 그리스의 대지진, 미국과 일본의 태풍, 호주의 우박과 폭풍피해 같은 재해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고 자체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일정한 사고는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손해발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

고 규모를 진압 차원에서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협력하여 이 같은 위험관리(Risk Control)를 잘해 나가면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보험회사도 예정손해율보다도 실제 손실률을 줄일 수 있어 보험회사의 수익성도 제고될 수 있다.

## 2.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이 실패하는 원인이 자산 운용의 오류에 있다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언더라이팅의 잘못에 있다.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과거의 손실발생 확률에다 미래의 예정치를 고려하여 보험요율과 보험조건을 매기는 행위이다. 따라서 언더라이팅의 기능은 어느 정도 부정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언더라이팅이라 하더라도 부정확한 과학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로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와 규모를 토대로 보험물건을 인수하고 자사가 인수한 물건의 이재율이 예상확률치보다 낮게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가. 우리나라 손보사의 방재활동

일찍이 삼성화재에서는 국내 보험사로는 최초로 1979년에 위험관리팀을 조직하여 위험관리 업무를 개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들이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4월 26일

재무부의 위험관리제도 활용 권장에 따라 각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조직을 두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81년에는 대부분 과 규모의 전담 부서를 두었고 1985년부터는 독립부서로 조직을 승격시키는 회사도 생겨났다. 적게는 수 명에서 많은 곳은 10여 명의 인원을 두어 운영하였다. 현재 각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능은 그 활동이 IMF의 여파로 약화되고 조직도 일부 회사만 부단위로 운영될 뿐 대부분 과 단위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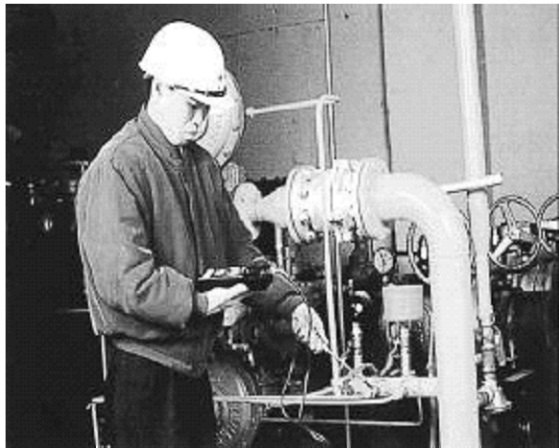
참고로 방재활동을 비롯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외국사례를 잠깐 살펴보자.

나. 외국 손보사의 위험관리활동

(1) 미국

미국 보험업계의 손해예방활동은 유럽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방재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다. 1986년 보스톤시 Manufacturer's Mutual Fire Ins. co.는 손보사들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연구를 위촉함으로써 방재과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전미지역으로 확대되어 보험업계, 소방단체, 산업계의 여러 방재기구를 총괄하는 최고기구인 전미방재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창설되어 100여 개의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게 되었다. 또 보험업계의 독자적인 기구인 전미화재보험협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 NBFU)는 주식회사 형태의 손보사들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주로 전기설비조사와 화재발생시 화재구조대와 같은 전문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화재보험회사들이 설립한 기구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보험회사 시험소(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있다. UL의 법적 지위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방기구의 전기기구 등은 각 주법에 따라 UL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UL은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4개처에 시험소



가 있으며 40개소의 국내점검센터가 있고 세계 주요국에 40여 개의 점검센터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UL의 주요활동은 과학적인 검사, 연구실험을 통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감소 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활동, 그리고 손해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과 확인이다. 그 외에 보험회사, 인권당국, 정부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시험, 실험, 점검 등의 결과를 공포·배포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상호회사 형태의 화재보험회사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방재기구로 공장상호보험기구(FM: Factory Mutual System)가 있다. 미국 손보사의 대부분이 사업비의 10% 정도를 방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2) 일본

일본보험회사의 방재활동을 보면 취급하는 위험(Risk)의 종류가 매우 광범위하다.

취급하는 대상 위험으로 ①건물, 설비장치 등의 화재, 폭발위험 ②보일러, 냉동설비의 폭발·파열위험 ③노동재해 및 생산물배상책임 등의 각종 배상책임 ④일반산업용 기계의 파괴손해위험 ⑤자동차보험에 관계되는 각종 위험 ⑥지진, 풍수재 같은 자연재해 등 매우 다양하다.

방재활동의 종류도 많아 ①공장·빌딩 등의 방

재계획에 대한 지문 ②조업중인 공장·빌딩 등의 안전진단 ③거액물건 등의 보험설계서비스 ④안전기술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회사의 방재활동을 보더라도 東京화재해상보험(주)는 본사 안전기술부에 엔지니어만 해도 20여 명을 두고 있고 安田화재해상보험(주)는 이미 73년에 방재활동 전문부서인 '안전기술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전국 8개처에 70여 명의 엔지니어를 두고 있다.

다.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업무 강화방향

(1) 경영여건의 변화

금년도의 영업보험료 자유화에 이어 순보험료의 자유화가 2003년 4월부터 실시되기로 되어 있다. 이미 보험 브로커제도가 도입되어 치열한 가격서비스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요율이 자유화되고 외국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경쟁이 가속화되면 보험료 수준은 일반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들이 종전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해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진 방재기술을 보유한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은 그들의 탁월한 위험관리기능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석유화학공장, 산업안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 보험시장을 잠식할 우

려가 있다.

(2)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서비스 강화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앞으로 위험관리업무를 강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보험회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위험관리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겠다. 이러한 위험관리기능 중 보험회사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기능은 대상기업에 위험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을 발견하는 일이고, 위험이 발생하여 개인이나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평가하는 기능이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서비스를 행해야 할 것이다.

① 건물의 방재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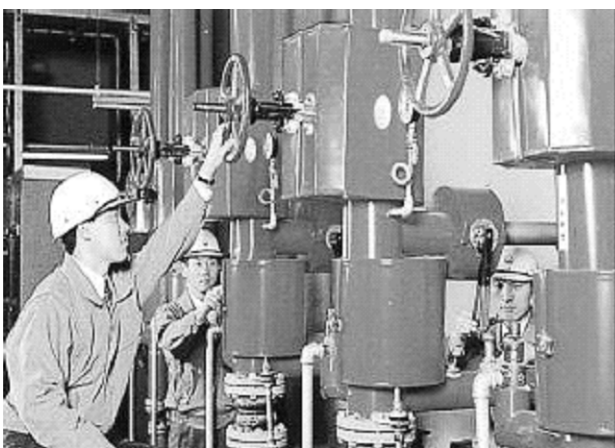
보험인수를 전제로 건물의 건설단계에서부터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방재시스템의 적합여부 판정과 건물에 적합한 방재시스템을 선정 제시하며 신규 방재시스템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하고 서비스를 통한 고장, 보수 등 기술적인 사항의 지도와 개선을 도모해 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기업의 방재요원에 대한 기술 지원

보험가입자인 기업에 대한 방재활동의 강화는 손해율을 낮출 수 있어 보험회사의 수익과도 연관된다. 기업의 방재관련자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방재를 위한 교육, 견학,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의 보급과 지도를 통해 기업의 위험 제거와 관리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③ 보험계약 인수조건과 요율의 다양화, 차별화로 기업의 참여 유도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의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고 방재관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저렴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기업의 신



기술 도입이나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④ 방재지도와 계몽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방재와 관련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재시험연구원의 운영, 간행물의 발간, 방재캠페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손해보험회사의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부서가 기업의 위험관리지도를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방재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공동 주관으로 건축물과 시설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3. 화재보험협회의 역할

가. 화재보험협회의 업적

1960~70년대의 대연각호텔과 시민회관의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발생을 계기로 선진 외국의 제도를 조사하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 2. 6)이 제정되고 손해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되었다. 동법에 따라 8개 주요도시의 특수위험을 화재보험협회가 풀(pool)의 형태로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사업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화보험협회가 풀을 운영해 오면서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 손해보험분야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화재보험법에 의해 특수건물로 지정되어 협회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폭발의 위험이 감소되었다.

또한, 1995년 7월에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화재안전기준인 NFC(National Fire Codes) 전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관련기관 및 기술인에 보급하여 선진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1998년부터 한국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여 화재보험협회가 주관하여 만들고 있는 KFS(Korea Fire Safety Standards; 한국화재안전기준)를 들 수 있다. KFS는 산업 전반에 관한 화재예방 및 소방기술에 관한 기준으로서,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가 만들고 있는 독창적인 화재안전기준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협조

(1) 손해보험회사의 방재활동의 한계성

방재활동은 일차적으로 사고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해야 하지만, 위험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인 보험업계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와 같은 민간특수단체가 보험의 고객인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손해율의 경감으로 계약자(기업)와 보험회사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담당부서의 활성화가 요구되지만 IMF여파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어 위험관리 담당인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손해보험회사의 방재활동기능은 질적·양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2) 화재보험협회의 기능 보강

따라서 손해보험회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단위 석유단지, 대규모 건설공사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으로 화협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여 방재권고사항을 제시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료 및 기술 축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상설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내에 진출한 선진 외국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건설된 정유, 석유화학 공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최근에 석유화학, 전자,

면방, 자동차 등 산업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정유, 석유화학공장의 신·증설로 인하여 해당 산업체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IMF로 인한 산업체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인력이 감축되어 안전분야 종사자들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상황에 대하여 외국재보자들은 산업체 경영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위험방지대책 강구, 국제 수준의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과 실행기관의 설립,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철저한 언더라이팅 서베이 그리고 손해보험업계 및 관련산업체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다. 화재보험협회의 진로

이상과 같은 제반사항에 비추어 볼 때 화재보험협회의 안전관리 기능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1) 화협이 방재의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 (2) 방재에 관한 세계적인 정보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재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센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3) 대형사고의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기술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화재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 (4) 끝으로, 화재보험협회는 종합위험관리기관이 되어야 한다. 즉, 실험, 조사,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화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난, 폭발, 자동차사고, 항공사고, 해상사고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손해보험사업의 위험관리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4. 맺는 말

보험브로커제도의 도입과 보험요율의 자유화로 인한 손해보험의 가격경쟁의 격화, 즉 요율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손해보험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정 손해를, 보다 낮은 실제손해를 유지하는 것이 경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손해보험회사는 각각의 위험에 따른 과학적인 언더라이팅을 하고 인수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여 유지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행정 하에서는 한계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요율을 정부가 유지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보호막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재활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방재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나 보험회사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고객보호와 보험경영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방재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방재와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는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손해보험회사의 방재를 위시한 위험관리 기능은 경영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화재보험협회는 종합방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협에 대한 각종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겠고, 화재보험협회 스스로도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